

九人先進의 組合運動에 나타난 宗教史的 意義*

유지원** | 원광대

〈 목 차 〉

- I. 머리말
- II. 원불교 조합운동의 實在
- III. 구인선진의 조합운동에 나타난 종교사적 의의
- IV. 맺음말

국문초록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은 1916년 원불교 교단을 창립하면서 구인제자를 이끌고 1917년의 저축조합과 1918년의 방언공사로 이어지는 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련의 조합운동은 당시 불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대종사의 뛰어난 포용적 지도력과 실천적 추진력 아래 구인제자들의 희생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수립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유음),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6)에 수록된 「조합운동을 통해 본 구인선진의 종교적 구현」이라는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한중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원불교의 조합운동은 초기 교단의 정신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와 기층 민중들의 의식 개혁을 이끄는 정신과 물질 모두를 개혁시키려는 종교적 근대화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를 구체적 실천하는 방법으로 대종사가 제시한 것이 바로 ‘영육쌍전(靈肉雙全)’과 ‘이소성대(以小成大)’정신이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폐를 해결하려는 종교적 실천운동이었다. 또한 이 ‘영육쌍전’과 ‘이소성대’라는 두 가지 정신이 종교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된 것은 구인선진의 스승에 대한 신성과 복종·희생적 정열·실천적 추진력 그리고 개혁정신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 주제어 : 소태산 대종사, 구인선진, 저축조합, 방언조합, 영육쌍전(靈肉雙全), 이사병행(以小成大)

I. 머리말

원불교는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1981-1943, 이하 대종사)가 1916년에 대각을 한 후 佛法에 연원을 두며 최초법어를 설파하고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1917년 대종사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홉 명을 골라 표준제자로 삼았는데, 이들이 바로 대종사의 구인제자요, 원불교 교단의 구인선진이다.¹⁾ 대종사는 바로 이 구인제자—일산 이재철(一山 李載喆, 載馮),

1) 대종사가 구인선진과 만나는 과정은 원불교 교서 중 『대종경』과 『원불교 교사』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대종경』서품 제5장을 보면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사십여 명에 이르러 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아홉 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장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이산 이순순(二山 李旬旬, 仁明), 삼산 김기천(三山 金幾千, 聖久), 사산 오창건(四山 吳昌建, 在謙), 오산 박세철(五山 朴世喆, 京文), 육산 박동국(六山 朴東局, 漢碩), 칠산 유건(七山 劉巾, 成國), 팔산 김광선(八山 金光旋, 成燮), 정산 송규(鼎山 宋奎, 道君)와 함께 저축조합을 창설하여 경제적 기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어늘, 근래에 그 주체가 위(位)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 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世道)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 회상 창립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나왔다.

또 『원불교교사』 제1편 제3장에는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사, 표어와 법어를 발표하신 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제 나의 안 바는 곧 도덕의 정체(正體)요, 나의 목적하는 바는 곧 새 회상을 이 세상에 창건하여 창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나,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폐인으로 평을 받았고, 일찍이 어떤 도가에 출입하여 본 바가 없었으며,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은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 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시고, 포교할 기회를 기다리시었다. 때 마침 증산교과가 사방에 일어나서 모든 인심을 충동 하던 중, 길룡리 부근에도 그 전과가 성한지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방편으로 여러 사람의 단결과 신앙을 얻은 후에 정도를 따라 차차 정법 교화를 하리라 결심하시고, 원기 원년(1916·丙辰) 7월 경, 친히 그 교과 선전원을 청하여 치성하는 절차를 물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정성으로 7일 치성을 지낸 후, 보통 생각으로는 가히 추상할 수 없는 말씀과 태도로 좌우 사람들의 정신을 황홀케 하시니, 몇 달 아니되어 이웃 각 처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명에 달하였다. 대중사, 40여명의 신자들과 서로 내왕한 지 4·5개월이 되었으나, 그들은 대개 일시적 허영심으로 모였고, 또한 그 동안 어떤 통제 있는 생활을 하여 본 바가 없는 이들이라, 그들을 일률 지도할 생각을 뒤로 미루시고, 그 해(원기 원년·1916) 12월 경, 그 중에서 특별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여덟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니, 곧 김성섭(金成燮)·김성구(金聖久)·박한석(朴漢碩)·오재겸(吳在謙)·이인명(李仁明)·박경문(朴京文)·유성국(劉成國)·이재풍(李載馮) 등이었으며, 그 후 송도군(宋道君)을 맞으시니, 이들이 곧 새 회상의 첫 구인 제자이다. 9인 중 첫 제자는 김성섭이니, 그는 본래 대중사의 가정과 교의(交誼)가 있어 친절함이 형제같은 중, 대중사의 입정 전후에 많은 보좌가 있었고, 박한석은 대중사의 친제(親弟)요, 유성국은 외숙이요, 박경문은 족질이며, 이인명·김성구·오재겸은 모두 근동 지우(近洞知友)이고, 군서(郡西) 사람 이재풍은 오재겸의 인도로 처음 만났으며, 송도군은 경북 성주 사람으로, 정법을 찾아 방황하다가 원기 3년(1918·戊午) 3월에 대중사께 귀의하였다.]」

초를 마련한 후 곧 바로 방언조합을 만들어 방언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들 구인제자들과 함께 법인성사를 완성함으로써 교단 성립의 정신적 기초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불교 초기 교단 성립기를 살펴보면 대종사와 더불어 구인제자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함께 추진한 조합운동은 원불교 성립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서 “조합”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축조합과 방언조합 그리고 불법연구회 기성조합 등이 있다.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신순철은 ‘저축조합’이라는 이름은 정산종사 송규가 1937년(원기 22)부터 2년간 『회보』²⁾에 발표한 글을 모아 놓은 『불법연구회 창건사』³⁾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명칭이고,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은 1924년 이리에서 불법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붙여진 이름인데 비해, ‘방언조합’이라는 명칭은 방언공사 준공의 명문(銘文) 등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대종사의 초기 조직의 이름은 바로 ‘방언조합’이라고 고증하고 있다.⁴⁾ 이렇게 불

-
- 2) 원불교 개교 초기에 월간으로 발행하던 정기간행물이다. 『월말통신』과 『월보』를 계승 발전한 것으로 1933년 9월에 총독부의 정식 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창간되었다. 『원불교대사전』, 「회보」條를 참고함.
 - 3) 원불교 창립기의 역사를 담고 있다. 원불교의 제2대 종법사인 송규가 집필하여 1937년부터 2년간 『회보』에 발표한 글로써 대종사의 탄생에서부터 1927년까지의 원불교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1975년에 출판된 『원불교교사』의 저본이 되었다. 『원불교대사전』, 「불법연구회창건사」條를 참고함.
 - 4) 신순철, 「1918년 길거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도서출판 원화, 1991), 62-63쪽. 또한 강현욱도 「원불교 협동조합운동 연구」(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에서 다음과 같이 고증하고 있다. 「저축조합은 기록상 대종경, 교사, 불법연구회 창건사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은 1927년(원기12) 「불법연구회 규약」에서 처음 등장하여 창건사, 교사에서 쓰여졌다. 현재 교단에서는 원기 원년부터 원기 4년까지의 시대를 저축조합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저축조합은 기록상 『불법연구회 창건사』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1927년도판 「불법연구회 규약」에서 ‘공부인 공부하난 비용과 회원의 자녀 교육비와 본회를 창립하난 비용에 충용하기 위하여 저축 조합부를 설립하오니’라 하여 공식 부서명인 ‘상조조합부’의 또 다른 이름으로써 기재 되었을 뿐이다. 창건사에서 말하는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은 창건사 내

때 원불교 초기 교단사를 얘기할 때 ‘저축조합’과 ‘방언조합’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영산에서의 이 두 조합의 활동을 통칭하여 ‘조합운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서 영산의 조합운동은 맨 먼저 1917년에 저축조합을 통하여 경제적 토대를 이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18년에는 방언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대종사를 위시로 조합원들은 1919년에 법인성사를 통해 교단 창립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한 후,⁵⁾ 10월에는 대종사가 부안 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⁶⁾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으로 이름이 바뀐에 따라 영산에서의 조합운동은 일단락되어진다.⁷⁾

이후 대종사는 1924년 4월에 전라북도 이리(현재는 익산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불법연구회”란 임시 교명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교단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였는데,⁸⁾ 이 때 종래의 기성조합을 대신하는 ‘상조조합’

에서 내용의 혼동을 보이고 있으며 저축조합은 창건사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방언조합’은 공사 준공 명문뿐 아니라 당시의 다른 기록물에서도 실제로 사용되어진 명칭이다.»

- 5) 『원불교교사』 제1편 제4장 「5.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 6) 대종사가 영산시대를 마감하고 변산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신순철은 「신흥저축조합 연구」(한국원불교학회, 『圓佛敎學』 제5집, 2000), 82-83쪽에서 3.1운동이후 대종사가 영광경찰서에 연행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였고, 박용덕도 『구수산 구십구봉 : 9인 선진 이야기』(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86쪽에서 3.1운동이후 일경의 감시가 강화된 것을 이유로 꼽았다.
- 7) 『원불교교사』 제1편 제5장 「1. 불법에 대한 선언」에 「원기 4년(1919·己未) 10월 6일에, 대종사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佛法研究會 期成組合)]이라 하시고, 모든 기록에도 일체히 불법의 명호(名號)를 쓰게 하시며 말씀…»라는 기록이 있다.
- 8) 『원불교교사』 제2편 제1장 「1.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 「원기 9년(1924·甲子) 3월에, 대종사, 서울에서 이리를 거쳐 전주(全歙光집)에 오시니 각 처에서 다수의 신자들이 모였다. 이에, 서중안 등 7인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 창립 준비를 토의할 제, 대종사, 총부 기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리 부근은 토지도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無産者)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의 내왕에 편리할 듯 하니 그 곳으로 정함이 어떠하나] 하심에, 일동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다. 또한 창립총회 개최 장소는, 이리 부근

이 만들어져, 교단의 각종 자금을 저축하고 적절하게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 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볼 때, 영산시기의 조합운동은 그 명칭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으로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며, 영산시기의 즉 1916년부터 1919년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 조합운동—저축조합운동과 방업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추진과정과 전개내용에서 구인선진들의 활동과 역할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정신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종교 정신을 구현하려 했는지를 밝힘으로써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서 구인선진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종사가 영산에서 회상을 창립하면서 전개한 일련의 조합운동은 모두 구인선진들의 적극적 동참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교단 성립의 다음 단계는 제법(制法)의 변산시대를 거쳐 전법교화(轉法教化)의 익산시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대종사가 교단 창립한도를 1회 12년씩 3회 36년을 제1대로 정하고 교단발전 3단계 계획에 따라 1회 12년을 교단창립의 정신적·경제적 기초의 확립에 두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⁹⁾ 즉 제1대 1단계

보광사(普光寺)로 예정하고 총부 건설지는 후일 실지 답사 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원기 9년 4월 29일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열어 종래의 기성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총회는, 영광·김제·익산·전주 지방에서 김 기천 등 14인이 각각 그 지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송 만경의 개회사로 개회하고, 서 중안이 임시 의장이 되어 창립 취지를 설명한 후, 규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규약에 따라, 총재로 대종사를 추대하고, 회장에 서 중안, 서기에 김 광선을 선정하였으며, 총부 본관 건설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의연금을 수납하되 그 일을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축사(시대일보鄭翰朝)와 회장의 답사가 일어난 후 폐회하였다.

이 때 채택된 규약은, 총직·임원·회의·회원의 권리 의무·가입 및 탈퇴·회계 및 기타 등 총 6장 22조로 되어 있는 바, 서무·교무·연구·상조조합·농업·식사·세탁의 7부를 두고, 총재 1인, 회장 1인, 부장 평의원 간사 각 약간인을 두며, 정기총회·임시총회·평의원회·월례회 등 4종의 회의를 두고, 유지는 입회금 연연금(年捐金) 의연금 농작 식리금 등으로 충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9) 『원불교교사』 제1편 제3장 “5. 법의 대전과 창립 한도”에 「원기 3년

에서는 먼저 영산에서 근검저축·금주금연·허례폐지·미신타파·시미(匙米: 일종의 현금)장려·공동노역 등을 통한 저축운동과 간석지 개간을 전개하였고, 이후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고 난 후에는 상조조합의 운영, 산업부의 창설, 황무지 개간을 통한 과수원과 양잠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종사가 창립한도를 설정하면서 제시한 제1대 제1회에서의 주요 목표는 교단을 창립하기 위한 정신적·경제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영산에서의 조합운동이 교단 성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합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비교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행연구로는 대개 다음 7편의 논문이 있는데, 발표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姜吉遠의 「日帝下の 經濟 自立運動의 一研究 : 貞觀坪 防堰工事의 例」(1982)
- ② 박용덕의 「少太山の 組合運動과 吉龍里干拓事業에 관한 研究」(1989)
- ③ 한정석의 「저축조합과 방언공사」(1989)
- ④ 신순철의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1991)
- ⑤ 신순철의 「신흥저축조합 연구」(2000)
- ⑥ 강현욱의 「원불교 협동조합운동 연구」(2012)
- ⑦ 이승현의 「막스베버(Max Weber)의 자본주의 정신과 원불교 저축 조합운동」(2012)¹⁰⁾

(1918·戊午) 10월에, 대종사, 새 회상의 창립 한도를 발표하시니, 앞으로 회상의 대수(代數)는 기원 연수(紀元年數)로 구분하되, 매대(每代)를 36년으로 하고, 창립 제일대(第一代) 36년은 이를 다시 3회(回)로 나누어, 제1회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의 인연을 만나는 기간으로, 제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제3회 12년은 법을 펴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장 기원은 대종사의 대각하신 해(1916·丙辰)로 기준 실시할 것도 아울러 발표하시었다.]

- 10) 姜吉遠, 「日帝下の 經濟 自立運動의 一研究 : 貞觀坪 防堰工事의 例」,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집(1982.12); 박용덕, 「少太山の 組合運動과

위 7편의 논문에서는 교단성립기 저축조합과 방언조합의 두 운동에 대하여 초기 교단사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민중들의 경제자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또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축조합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원불교 초기 교단사를 설명하면서 조합운동의 의미를 함께 다룬 선행연구들도 있으며,¹¹⁾ 『원불교신문』¹²⁾이나 월간 『원광』¹³⁾ 등에 게재된 단편의 글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원불교 초기 교서¹⁴⁾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종사가 정한 교단 창립한도의 제1대 제1회 중에 원기 원년(1916년)부터 원기 4년(1919년)까지의 교단 창립기에 대종사와 구인선진이 일련의 조합운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중

吉龍里干拓事業에 관한 研究」, 『정신개벽』 제7·8집(1989, 6) ; 한정석,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원불교창립제이대말뫎대종사단신백주년성업봉찬회(편찬)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 신순철,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 도서출판 원화, 1991) ; 신순철, 「신흥저축조합 연구」, 한국원불교학회, 『圓佛敎學』 제5집(2000, 12) ; 강현욱, 「원불교 협동조합운동 연구」,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원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2012) ; 이승현, 「막스베버(Max Weber)의 자본주의 정신과 원불교 저축조합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2012. 2).

- 11)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서울 ; 시인사, 1986) ;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 원불교 초기교단사 1』(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 손정운, 『원불교 80년사의 맥박』(익산 ; 원불교출판사, 1998) ; 박맹수, 「圓佛敎의 民族運動에 관한 一研究」,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 도서출판 원화, 1991) 등이 있다.
- 12) 원불교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이다. 『원불교대사전』, 「원불교신문」 條를 참고함.
- 13) 1949년 4월에 설립된 원불교 원광사에서 발행되는 원불교 교단 기관지의 하나로, 『회보』의 제호를 바꾸어 1949년 7월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격월간 또는 계간으로 발행되어 오다가 현재는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원불교대사전』, 「월간원광」 條를 참고함.
- 14) 『원불교 전서』 중 『대종경』, 『원불교 교사』 등과 『대종경선외록』, 『원불교교고종간』(제1권-제6권), 『불법연구회창건사』 등.

교적 신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원불교 조합운동의 實在

원불교 교단 성립기 일련의 조합운동의 시기별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1917년(원기 2년) 저축조합 ⇒ ②1918년(원기 3년) 방언조합 ⇒ ③1919년
 (원기 4년) 불법연구회기성조합 ⇒ ④1920년(원기 5년) 천정조합 및 묘량수
 신조합(신흥저축조합) ⇒ ⑤1924년(원기 9년) 상조조합으로 변화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①, ②, ④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맨 처음 전개된 저축조합과 관련된 원불교 각종 교서의 기록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서 중 하나인
 『대종경』¹⁵⁾에는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
 시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
 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
 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
 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
 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 주자.] 하시고, 먼저 금주 금연과 보은미(報恩
 米) 저축과 공동 출역(出役)을 하게 하시니라.¹⁶⁾

라고 기록되어 있고, 『원불교교사』¹⁷⁾에는

원기 2년(1917·丁巳) 8월에, 대종사, [저축 조합]을 창설하시고, 단원들
 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차 시방 세계를 위하여 함께 큰 공부와 사업
 을 하기로 하면, 먼저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하여야 하고, 예비

15) 소태산대종사의 언행록으로 원불교 교서의 하나로 총 15품 457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1962년에 편찬 발행되었다. 『원불교대사전』, 「대종경」條를
 참고함.

16) 『대종경』 「서품」 제7장.

17) 원불교 교서(敎書)의 하나이며 원불교의 개교 반백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으로 1975년에 원불교정화사에서 편찬해 출판하였다. 전3편으로 구성되었
 으며, 교조 소태산대종사의 탄생과 구도 및 대각(大覺)에서 교단 창립과정,
 그리고 1971년 원불교 개교반백년기념대회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원불교대사전』, 「원불교교사」條를 참고함.

를 하기로 하면 어떠한 기관과 조약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이제 회상 기성(期成)의 한 기관으로 저축 조합을 실시하여 앞일을 준비하려 하노라 하시었다.

이에 모든 단원이 술·담배를 끊어 그 대액(代額)을 저축하며, 의복·음식 등에 절약할 정도가 있으면 그 대액을 저축하며, 재래의 여러 명절 휴일을 줄여 특별 노동 수입을 저축하며, 각자 부인에게도 끼니마다 시미(匙米)(후일 報恩米)를 저축케 하며, 그 간 실행해 온 천제(天祭)도 폐지하여 그 소비 대액을 조합에 저축하기로 하고, 대종사, 친히 조합장이 되어서 그 실행을 장려하시니, 불과 몇 달에 저축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200여원)에 달하였다.

대종사, 조합원들에게 명하여, 그 동안의 저축금으로 숯을 사 두라 하시고, 한 편으로는 이웃 마을 부호 한 사람에게 빚(400원)을 얻으며, 대종사께서 그 간 준비해 두신 사재(400원)도 판출 제공하사 다 숯을 사 두게 하시니, 7-8개월 후 그 값이 일약 10배(倍)로 폭등하여 조합은 1년 안에 큰 자금을 이루게 되었다. 대종사의 사재는 대각 이후로 본 덕에 남아 있는 가구 등속을 매각 작전(賣却作錢)하여 운용 조성한 것이요, 빚은 당시 조합의 신용으로는 얻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대종사께서 명령하신 다음 날, 부호가 자진하여 빚을 주었다. 조합원들은 뜻밖의 성공에 기뻐하는 동시에, 이것은 아마 하늘이 우리 사업을 도와주심이라 하여, 더욱 신심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숯 무역은 제 1차 대전으로 숯 시세의 일대 변동을 당하여 그러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¹⁸⁾

라고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鼎山 宋奎가 집필한 『불법연구회창건사』에도 저축조합에 대하여

우리의 경영한 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안이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한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안이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현금(現金) 생활이 모두 무산자의 처지에 있으니 의복 음식과 기타 각항 용처에 특별한 소비절약이 안이면 단기원(單機圓)의 자금을 판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즉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보호에 별 필요 업는 술과 담배를 끊으되 재래의 매월분 얼마 가량 소비되는 것을 참조하여 그 소비대금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의복 음식 등에 혹 절약할 정도가 잇거든 그것을 단행하여 그 절약된 금액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재래의 휴식일을 정도에 따라 좀 축소하여 매월 특별 로동일을 정하여 그 수입된 이익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각자 부인의게 부탁하여 매시 시미(匙米)(금운(今云) 불미(佛米))를 집합 저축케 하고 또는 전일에 실행하여온 천제(天祭)에 대하여도 천제(天帝)께서 자금(自今) 이후난 그

18) 『원불교 교사』,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4장 회상 건설(會上建設)의 정초(定礎) 1. 저축 조합 운동.

행사를 폐하고 소비대액으로써 본 조합에 저축하여 장래 사업에 실용케 하라는 분부가 계시니, 우리가 만약 이상에 말한 바 물론 조합을 지성 실행한다면 이것이 모다 폐물이용과 진합태산(塵合泰山) 격으로 장차 큰 자원이 적입(積入)되야 우리의 공부와 사업하난대에 반다시 완전한 토대를 일울 것이다.¹⁹⁾

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중사는 저축조합을 설립하여 교단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구체적 방법을 구인제자에게 제시하였는데, 금주금연·근검절약·공동출역·시미(보은미)저축·허례폐지 및 미신타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족지도자들이 전개했던 국채보상운동이나 금주단연운동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를 궁촌벽지 영광 지역에서 직접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민족경제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²⁰⁾

또한 대중사는 스스로 저축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구인제자들을 이끌고 이러한 구체적 운동을 직접 실천에 옮김으로써 몇 달 만에 일정 자금을 비축하였고, 이를 다시 숯장사에 투자하여 불과 1년 만에 10배의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교단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즉 방언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대중사의 뛰어난 정세분석 능력과 경제적 안목을 알 수 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물가 대폭등으로 인한 숯 가격 상승을 예견하였던 것이다.²¹⁾ 둘째, 구인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본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중사가 저축운동을 추진한다 해도 제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면 자금의 축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인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²⁾

19) 『불법연구회창건사』, 43-44쪽; 『원불교교고총간』(제5권), 24-25쪽.

20) 박맹수, 「圓佛敎의 民族運動에 관한 一研究」,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도서출판 원화, 1991), 33쪽.

21)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서울; 시인사, 1986), 321쪽.

22) 박용덕, 『구수산 구심구봉: 9인 선진 이야기』(익산; 원불교출판사, 2003)
; 손정윤, 『원불교 80년사의 맥박』(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宋仁傑,

다음 두 번째로 전개된 방언조합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종경』 8장에는

대중사 길룡리(吉龍里) 간석지(干潟地)의 방언(防堰) 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 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 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動)과 정(靜)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²³⁾

라고 나와 있고, 『원불교교사』에도

원기 3년(1918·戊午) 3월에, 대중사, 저축 조합의 저축금을 수합하신 후, 조합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떠한 사업이나 가치 경영할 만한 약간의 기본금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인 바, 나의 심중에 일찍이 한 계획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생각해 보라] 하시고, 길룡리 앞 바닷물 내왕하는 간석지를 가리키시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버려 둔 바라, 우리가 언(堰)을 막아 논을 만들면 몇 해 안에 완전한 논이 될 뿐 더러 적으나마 국가 사회의 생산에 한 도움도 될 것이다. 이러한 개척 사업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공익의 길로 나아감이 어떠하나] 하시었다. 조합원들은 원래 신심이 독실한 중에 몇 번의 증험도 있었으므로, 대중사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 계교를 내지 아니하고 오직 절대 복종 하였다. 이에, 일제히 명을 받들어 오직 순일한 마음으로 지사 불변(至死不變)하겠다는 서약을 올리고, 다음날로 곧 방언 공사에 착수하였다.

조합원들이 공사에 착수하니, 근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냉소하며, 혹은 장차 성공치 못할 것을 단언하여 장담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 비평 조소에 조금도 끌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더욱 내며 뜻을 더욱 굳게 하여, 일심 합력으로 악전고투를 계속 하였다. 삼복 성염(三伏盛炎)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삭풍 한설에는 추위를 헤치면서, 한 편은 인부들을 독촉하고 한 편은 직접 흙집을 저서,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아니 하였다.

방언 공사는 이듬해인 원기 4년(1919·己未) 3월에 준공되니, 공사 기간

『九人先進』 (이리 ; 월간 圓光, 1988).

23) 『대종경』 「서품」 제8장.

은 만 1개년이요 간척 농토 면적은 2만6천여 평(坪)이었다. 대종사, 피땀의 정성 어린 새 농장을 [정관평]이라 이름하시니, 이는 오직 대종사의 탁월하신 영도력과 9인 제자의 일심 합력으로써 영육쌍전의 실지 표본을 보이시고, 새 회상 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세우신 일대 작업이었다.

공사를 마친 후에도 조합원들의 노력과 고생은 쉬지 아니하였으니, 넉넉지 못한 힘으로 근근히 준공은 하였으나, 아직 굳어지지 않은 언(堰)의 뒷일과 4·5년간의 해독(海毒)으로 수년간 작농에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해를 두고 조합원 외에도 육신과 재력(財力)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후원을 한 이가 적지 않았으니, 특별 후원자는 유정천(劉正天)등 18인(별록1)이었다.²⁴⁾

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불법연구회창건사』에도 방언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원기3년(1918) 3월경에 대종사께서 본 조합의 자금을 수집하신 후 조합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는 어떠한 사업이나 가이 경영할만한 약간의 기본금을 얻었으니 이것으로써 무엇이라도 착수하여야 할 것인바 내 심중에 일찍이 한 계획이 있으니 제군들은 이 말을 잘 생각해보라 하시고 인하여 길거리 전면에 해수래왕하는 간석지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것은 중인의 버린 바라 우리가 방언하여 작답할 진대 불과 기년에 완전한 토지가 될 뿐 아니라 폐물 이용에 인하여 비록 적으나마 또한 국가사회의 생산 중 한 도움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개척 사업에 노력하여 처음부터 이 공익의 길을 나아감이 어떠하냐 하시니 조합원들은 원래 신념이 독실한 중에 겹쳐야 몇 번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종사의 말씀에 사랑계교를 내지 아니하고 이구동성으로 오직 유유복종하였다. 대종사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약한 힘으로써 이 거대사를 착수하기로 하면 이 석상에서 한갓 언약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철저한 생각과 희생적 노력을 미리 결심하여야 할지니 제군은 오직 순일한 마음으로 지사불변하겠다는 서약 두통을 써서 한 통은 천지허공에 그 사유를 고백하고 한 통은 조합에 보관하여 후일 증명케 하라하시니 조합원들은 일제히 각각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을 올리니 그 서약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들은 다행히 대도 대덕의 초창 시대를 당하여 외람히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맞았는 바 마음은 한 사문(師門)에 바치고 몸을 공중사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수하오니, 오직 여덟 몸이 한 몸이 되어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육 고락을 진퇴를 같이 하며,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은 퇴전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안키로써 혈심 서약하오니, 천지신명은 일제히 통촉하사 만일 이 서약에 어긴 자가 있

24) 『원불교 교사』,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4장 회상 건설(會上建設)의 정초(定礎) 2. 정관평 방언 공사.

거든 밝히 죄를 내리소서. 또는 중사주께옵서도 이 배신자에 대하여는 조금도 용서치 말으시고 상당한 중죄를 내리시며, 일만 동지께서도 공동 배척하여 어떠한 죄벌이라도 다하여 주소서. 만일 배신 행동을 자행한 자로는 일체 죄벌을 감수하겠으며, 또는 조금도 여한이 없겠기로 자(茲)에 서명 날인 함.²⁵⁾

이렇게 조합원들은 서약을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간척 사업에 착수하여 딱 1년 만에 2만 6천여 평의 간척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이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축조합운동으로 모았던 자금도 바닥나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였으나, 구인제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일심합력으로 극복하기도 하였다.²⁶⁾ 또한 방언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질투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지만, 대중사의 대승적 태도로 구인제자들을 설복시켜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하였다.²⁷⁾ 당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25) 『불법연구회창건사』, 46-48쪽 ;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25-28쪽.

26)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 원불교 초기교단사 1』 (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337-339쪽과 박용덕, 『구수산 구십구봉 : 9인 선진 이야기』 (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252-254쪽에서 이와 관련된 일화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27) 『대중경』 「서품」 제9장이 바로 이러한 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단원들이 방언 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자기도 간척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깊이 미워하거늘,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이치의 당연함이어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의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 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쓰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와 같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 원불교 초기교단사 1』, pp.340-343쪽과 신순철,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73-74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받았던²⁸⁾ 이 방언공사가 불과 1년 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중사의 뛰어난 포용적 지도력과 실천적 추진력 아래 구인제자들의 희생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²⁹⁾

그럼 대중사는 왜 도덕을 배우려 찾아 온 구인제자들에게 육체노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언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대중사는 방언공사를 추진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루는 이춘풍(李春風)이 와서 비오니,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 함이여늘, 나는 무슨 뜻으로 도덕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같이 먼저 언(堰)을 막으라 하였는지 그 뜻을 알겠는가.] 춘풍이 사되기를 [저 같은 소견으로 어찌 깊은 뜻을 다 알으오리까마는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오니, 첫째는 이 언을 막아서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심ियो, 다음은 동심합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인가 하나이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대개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보라. 저 사람들이 원래에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 만년 불고하던 간석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매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이 한 일의 시(始)와 종(終)을 볼 때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또는 소비 절약과 근로 작업으로 자작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福祿)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그 괴로운 일을 할 때에 솔성(率性)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켰노라.]³⁰⁾

이렇게 볼 때 대중사는 방언공사를 통해 구인제자들에게 스승에 대한 신

28) 이와 관련된 일화는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 27-29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한정석,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126-128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9) 방언공사에 구인제자들의 적극적 참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팔산 김광선(성섭)이 완성된 제방이 게 구명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것을 혹한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아낸 일화는 유명하다. 이에 대하여서는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원불교 초기교단사 1, 347쪽과 박용덕, 『구수산 구십구부: 9인 선진 이야기』, 254-257쪽 그리고 한정석,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128-129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0) 『대종경』 「서품」 제10장.

심정도를 보아 참된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始終如一의 정신·자립정신·고진감래의 정신을 체득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종사의 저축조합운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설립된 묘량수신조합³¹⁾(신흥저축조합)과 천정조합이다. 대종사가 변산으로 들어간 이후 영산 조합운동은 일단락되어졌지만, 구인제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각자의 마을이나 부락에서 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 두 조합이 설립되어진 것이다.

묘량수신조합은 대종사의 저축조합을 모델로 구인제자 중의 한 명인 일산 이재철의 팔촌 동생으로 대종사의 제자로 귀의한 이동산(道山)이 1920년 3월에 10여명의 동지와 함께 설립한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향상과 자녀 교육을 위한 근검저축을 실시하였고, 농법개량과 황무지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력 향상을 이끌었다. 또한 조합의 자산 증식에 노력하여 설립된 지 7년 만에 총 자산이 1100여원에 이르렀다. 그 후 1927년에는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불법연구회 영광지부 신흥분회로 편입하게 되어, 일부 재산은 교당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불법연구회 상조부 저축계에 예치되었다.³²⁾

이러한 묘량수신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축 혹은 방언조합 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의 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축조합으로써 농민의 고리대를 해결해주고 곡물파동이 났을 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호혜의 정신을 발휘하여 농민들로부터 더욱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현대적 협동조합운동에 효시가 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³⁾

천정조합은 1922년에 대종사의 구인제자 중 한 명인 삼산 김기천이 대종사의 저축조합을 모델로 삼아 결성되었다. 김기천은 길룡리 저축조합의 방식대로 농민들에게 근검절약과 저축을 장려하는 한편 대종사의 법설대로 도덕 교화에 힘썼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열흘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오전에 예회보고 오후에는 공동작업도 하며, 저녁에

31) 이 조합의 명칭은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흥부락에 위치하고 있어 묘량수신조합 혹은 신흥저축조합이라 부른다.

32) 신순철, 「신흥저축조합 연구」, 86-88.

33) 강현욱, 「원불교 협동조합운동 연구」, 49쪽.

는 야학을 하였다. 그리하여 3년 만에 많은 자산이 증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기천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 오직 김기천만을 스승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³⁴⁾ 이에 대종사는 김기천을 꾸짖어 행동을 바로 잡았으며, 천정조합도 1924년에 불법연구회가 익산에서 출범한 이후 상조조합으로 편입되었다.³⁵⁾

이렇게 볼 때 대종사가 구인제자들과 함께 전개한 조합운동은 원불교 교단의 정신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병폐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농촌 벽지의 기층 민중들의 의식 개혁을 이끌면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인도하여 정신과 물질 모두를 개혁시키려는 종교적 근대화운동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Ⅲ. 구인선진의 조합운동에 나타난 종교사적 의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불교 교단 성립기 영산에서 대종사를 중심으로 구인선진들이 전개한 조합운동은 단순히 교단 설립을 위한 정신적

34) 박용덕, 『구수산 구십구봉 : 9인 선진 이야기』, 86-88쪽

35) 김기천의 중근 병증과 관련하여 대종사가 꾸중한 내용이 『대종경선외록』(이리; 원불교출판사, 1985), 103-104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원기 28년(계미) 1월 4일에 대종사 대중을 모으시고 중근의 병증과 그 말로에 대하여 간곡한 범문을 내리시었다. 때에 한 제자 여쭙었다. “무슨 방법이라야 그 중근을 쉽게 벗어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범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 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하고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면 되는 것이다. 초창 당시에 도산(道山)을 두대하는 사람들과 삼산(三山)을 두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산은 그 사람들의 신앙 계통을 직접 나에게 대었으나 삼산은 미처 대지 못하고 이단같이 되어 장차 크게 우려되므로 내가 삼산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일이 작은 일 같으나 앞으로 큰 해독 미침이 살인강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한 삼산이 함정에 빠져버린 후에는 내가 아무리 건져주려 하여도 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고 제재하였더니, 삼산이 그 말을 두렵게 듣고 두대하는 사람들을 이헤시켜 신앙 계통을 바로 잡고 공부에만 독공하더니, 결국 중근을 무난히 벗어나 참 지각을 얻었느니라.」

·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었는가? 아니면 일체의 식민지 지배 하에 놓인 당시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과정이었는가? 이 두 가지 모두 대종사가 추진한 조합운동의 목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와 구인선진의 조합운동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필자는 당연히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종교사적 입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대종사가 원불교를 개창하면서 내건 개교 표어가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³⁶⁾이고, 개교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행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행복 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³⁷⁾

이와 같이 대종사는 당시 사회에 대한 냉철한 인식 아래 팽배해진 물질 중심의 풍조를 바로잡고자 정신개벽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정신개벽의 실천 방법으로 대종사가 제시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육쌍전(靈肉雙全)’이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영육쌍전법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 왔으나, 이제부터는 목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불 조사 정전(正傳)의 심인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³⁸⁾

36) 『원불교 전서』의 맨 앞부분이 『원불교교전』이며, 이 『원불교교전』의 두 번째 쪽에 「개교표어」가 있다.

37)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이것이 바로 대종사가 당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영과 육을 둘로 보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정신과 물질을 함께 수련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³⁹⁾ 전통시대의 종교에서는 일정한 자력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수행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지만, 새로운 세상 즉 새로운 시대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병행(理事並行)’⁴⁰⁾이고, ‘동정일여(動靜一如)’⁴¹⁾인 것이다.⁴²⁾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산 종교로 출발하는 원불교가 영육이 쌍전하고, 이사가 병행하는 종교적 정신을 구현하고자 대종사와 구인제자가 함께 제일 먼저 전개한 것이 바로 앞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조합운동—저축조합과 방언조합—의 실제적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의 제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는 1956년 정관평 재방언 공사 착공식에서 이 방언공사를 「영육쌍전」의 표본이라고 평가하였다.⁴³⁾ 또 원불교의 제3대 종법사인 대산 김대거도 「영산성지의 방언의 대역사는 영육쌍전·동정일여·이사병행하는 일원 회상의 시범을 보여 주신 것」⁴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두 조합운동에 반영된 또 하나의 종교적 구현은 바로 ‘이소성대(以小

38) 『정전』, 제3 수행편, 「제16장 영육쌍전법」.

39) 『원불교대사전』, 「영육쌍전」條.

40) 이(理)는 공부(공부), 사(事)는 사업을 의미하여 이치(공부)와 일(사업)을 아울러 수행하자는 것으로, 이 표어는 『원불교교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여 영육쌍전’, ‘불법 시 생활 생활 시 불법’ 등의 원불교 교리표어의 뜻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원불교대사전』, 「이사병행」條를 참고.

41) 동(動)은 몸과 마음(六根) 작용하여 일을 처리해 가는(有事) 것을 말하며, 정(靜)은 일이 없을(無事) 때를 이룸이며, 일여(一如)는 한결같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정일여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지키는 공부를 말한다. 그래서 대종사는 과거 종교의 공부방법과는 달리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법을 말했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이 없는 큰 공부」를 하도록 인도하였다. 『원불교대사전』, 「동정일여」條를 참고.

42)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317쪽.

43)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法語), 제4 경륜편(經綸編), 13장.

44) 『대산종사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修身綱要)1, 「122.성지(聖地)의 뜻」.

成大)정신이다. 대종사와 구인제자가 영광의 작은 마을에서 실천에 옮긴 절약절식·금주금연·근검절약·공동출역·시미저축·허례폐지 등을 통한 저축활동과 이렇게 저축된 자금을 다시 숯장사에 투자하여 10배 자금을 조성하여 방언공사를 추진한 것은 바로 이 ‘이소성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긴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는 바로 이 ‘이소성대’ 정신의 종교적 구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이소성대(以小成大)는 천리(天理)의 원칙이니라.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난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창립할 때에는 그 힘이 심히 미약하였으나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 큰 종교들이 되었으며 다른 모든 큰 사업들도 또한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 그렇게 커진 것에 불과하니, 우리가 이 회상을 창립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사심 없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결국 무위이화(無爲而化)의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이요, 또는 공부를 하는 데에도 급속한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승의 지도에 복종하여 순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마침내 성공의 지경에 이를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권도(權道)로 일시적 교세의 확장을 꾀한다든지 한 때의 편벽된 수행으로 짧은 시일에 큰 도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한갓 어리석은 욕심이요 역리(逆理)의 일이라, 아무리 애를 쓰되 헛되어 세월만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欲速心)에 끌리지 말고 위에 말한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여김없이 성취하기 바라노라.]⁴⁵⁾

이렇게 대종사가 강조한 ‘이소성대’정신을 저축조합과 방언조합의 활동을 통해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바로 구인선진들이다. 즉 종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 모든 사물 그리고 금전(돈)을 대함에 있어서는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표현한 것이 조합운동으로 나타난 원불교 창립정신⁴⁶⁾인 것이다.⁴⁷⁾

근대 유럽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자신의 저서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에서 금욕적

45) 『대종경』 「교단품」 제30장.

46) 원불교의 창립정신은 소태산대종사와 구인제자들이 창립초기에 저축조합·방언공사·혈인기도·익산총부건설 등 일련의 초기 교단사에서 보여주었던 이소성대의 정신, 사무여한의 정신, 일심합력의 정신 등을 말한다. 『원불교 대사전』, 「창립정신」條에서 인용.

47)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341쪽.

직업윤리에 대한 「금욕적으로 직업노동에 종사하면서 모은 부를 낭비하면 종교정신이 퇴색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벌고 많이 절약하고 많이 회사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⁸⁾ 또한 중국에서 근세이후 발달한 신유학이라는 종교적 윤리 관념의 강한 영향을 받은 명(明)과 청(淸)의 상인 윤리 중에는 ‘근검(勤儉)’ 즉 ‘부지런함(industry, 勤)과 검약(frugality, 儉)’이라는 양대 요소와 ‘성신(誠信)’과 ‘속이지 않음(不欺)’이 중심적 덕목인데, 이는 대종사의 조합운동에 나타난 정신과도 비슷하다.⁴⁹⁾

이렇게 볼 때 대종사가 교단 성립 초기에 구인제자들에게 주창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합운동을 통해 실천에 옮기게 한 ‘영육쌍전’과 ‘이사병행’이라는 종교적 구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사회에서든지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실천적 종교적 구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IV. 맺음말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이 1916년 대각(大覺)한 이후 교단 창립에 나서면서 자신을 따르는 구인제자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1917년의 저축조합과 1918년의 방인공사로 이어지는 조합운동이었다. 이렇게 대종사의 지도 아래 구인제자들이 함께 전개한 일련의 조합운동은 당시 불리한 사회적 배경—궁촌벽지라는 지정학적 위치, 일제의 탄압과 견제 등—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교단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개된 저축 조합운동에서 대종사는 스스로 조합장이 되어 구인제자들을 이끌고 금주금

48) 막스 베버(지음), 김덕영(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도서출판 길, 2010), 130쪽.

49) 余英時(지), 정인재(역), 『中國 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236-241쪽에 명청시대 중국의 대규모 상인집단, 예를 들면 휘주상인(徽商)의 규약에 근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연·근검절약·공동출역·시미(보은미)저축·허례폐지·미신타파 및 숫장사 등 구체적 방법의 실천으로 자금을 축적하였다. 또한 대종사는 교단 창립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언공사—를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합운동에서 무엇보다도 구인제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종사의 뛰어난 포용적 지도력과 실천적 추진력 아래 구인제자들의 희생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로써 구인선진들도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아 始終如一정신·자립정신·고진감래 등의 매우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대종사와 구인제자가 함께 전개한 일련의 조합운동은 원불교 교단의 정신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와 기층 민중들의 의식 개혁을 이끌면서 생활태도의 변화를 인도하여 정신과 물질 모두를 개혁시키는 종교적 근대화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는 물질과 정신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영육쌍전(靈肉雙全)’과 ‘이소성대(以小成大)’정신이였다. 이 두 가지 종교적 구현 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폐를 해결하려는 종교적 실천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종사가 제시한 ‘영육쌍전’과 ‘이소성대’라는 두 가지 정신이 종교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구인선진이라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신성과 복종·희생적 정열·실천적 추진력 그리고 개혁정신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원불교 전서』
- 『대종경선의외록』
- 『원불교교고총간』
- 『불법연구회창건사』
- 『정산종사법어』
- 『대산종사법문집』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원불교대사전』, 익산시 ;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 시인사, 1986
- 막스 베버(지음), 김덕영(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 도서출판 길, 2010
- 박용덕, 『구수산 구십구봉 : 9인 선진 이야기』, 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 박용덕,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 원불교 초기교단사 1』, 익산 ; 원불교출판사, 2003
- 손정윤, 『원불교 80년사의 맥박』,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98
- 宋仁傑, 『九人先進』, 이리 ; 월간 圓光, 1988
- 余英時(저), 정인재(역), 『中國 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姜吉遠, 「日帝下の 經濟 自立運動의 一研究 : 貞觀坪 防堰工事의 例」,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집 (1982.12)
- 강현욱, 「원불교 협동조합운동 연구」,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박맹수, 「圓佛敎의 民族運動에 관한 一研究」, 원불교 교화연구회,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 도서출판 원화, 1991)

九人先進의 組合運動에 나타난 宗教史的 意義

- 박용덕, 「少太山の 組合運動과 吉龍里干拓事業에 관한 研究」, 『정신개벽』 제7·8집(1989, 6)
- 신순철,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원불교 교화연구회,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서울 ; 도서출판 원화, 1991)
- 신순철, 「신흥저축조합 연구」, 한국원불교학회, 『圓佛敎學』 제5집(2000, 12)
- 이승현, 「막스베버(Max Weber)의 자본주의 정신과 원불교 저축조합운동」,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2012. 2)
- 한정석,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원불교창립제이대말및대종사탄신백주년성업봉찬회(편찬)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Abstract

The Savings Cooperative Movement & Levee Project by the Nine Members of Sotaesan

Yu, Ji-won(Wonkwang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role of the Nine Members of Sotaesan(The Founding Master) in the early Won-Buddism. In preparation for founding Won-Buddism, Sotaesan(The Founding Master) organized the Savings Cooperative of Killyong-ni in 1917. And he required the Nine Members to start by abstaining from smoking and drinking, saving up 'rice for the requital of grace,' and participating in cooperative labor.

And then Sotaesan(The Founding Master) also began a Levee Project to reclaim tideland at Killyong-ni and he supervising the work in 1918. The Nine Members completed this Levee Project successfully.

I think that a achievement of this two Movements was by the Nine Members' religious practices. In addition to this, I take notice of the fact that this achievement based on the teachings of Sotaesan : The Wholeness of Both Spirit and Flesh(靈肉雙全) and The Simultaneous Practice of Universal Principles and Human Affairs(理事並行).

■ Key words : the Nine Members of Sotaesan, the Savings Cooperative Movement, the Levee Project, the Wholeness of Both Spirit and Flesh, the Simultaneous Practice of Universal Principles and Human Affairs

접수일자: 2016. 10. 31 심사일자: 2016. 12. 21 게재결정: 2016. 12. 22

